

# Frankfurter Rundschau

## ‘그람시’ / ‘수오르 안젤리카’ 괴를리츠 공연 – 떠나고 싶지만 머물러야 할 때

2025년 5월 6일, 16:40

글: 유디트 폰 슈테른부르크



그람시는 사유와 함께 있다. © 니콜라이 슈미트

괴를리츠 극장이 ‘그람시’와 ‘수오르 안젤리카’를 함께 구성한 이중 공연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괴를리츠 극장은 전혀 색다른 시도를 감행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작동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다름슈타트 출신 작곡가 코르트 마이예링과 2018년 12월 작고하기 전까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에서 음악계를 이끌었던 비평가 한스 클라우스 융하인리히는 수년 전부터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오페라를 기획했음에 틀림없다. 융

하인리히는 자신답게 원고를 제때 넘겼고, 마이예링의 회고에 따르면 지나치게 긴 분량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원하는 대로 해. 이건 내 제안일 뿐이야.”

마이예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음악적 구상에 따라 수정하고 축약했다. ‘그람시’, ‘15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오페라’는 이제 괴를리츠에서 초연되었다. 무솔리니 치하에서 수감된 공산주의 지식인 그람시는 무력함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필기구를 손에 넣고 나서부터는 극단적인 사유와 글쓰기, 외적 조건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프로그램을 감옥 안에서 전개해 나간다.

## “파시즘은 유럽을 집어삼킨다”

하지만 여기에 비현실적이거나 초월적인 것은 없다. 이 점이 곧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을 위해 글을 쓰고 있지만, 정작 영원은 이 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사이 바깥 세상은 무너지고 있다.”용하인리히가 그려낸 그람시는 환상 없이 말한다.“파시즘은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고, 당은 몸을 낮추고 있다. 특히 스탈린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자는 러시아만을 신경 쓰고 있다. 그는 그저 붉은색을 칠한 차르일 뿐이다!”

그람시는 고독하지만 완전히 외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가족들이 환영처럼 떠오르며, 모스크바로 망명한 아내와 아름다운 처제가 등장한다. 그람시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도 그에게 끌린다. 음악은 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달콤함을 아주 잘 표현한다. 마이예링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며, 바로 이 접근성을 대담하게 활용한다. 형과 어머니와의 따뜻한 장면, 아내 율리아와의 냉랭한 장면, 정치적 인물들과의 조우 속에 드러나는 압박감과 동시에 냉철함(그람시는 침착하고 지적이다), 그리고 섬세한 합창 장면이 인상적이다. 특히 샤르데냐의 뛰어난 남성 4인조 성악 그룹이 마치 자연스럽게 끼어들듯 등장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민속음악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인 텍스트를 무저항적으로 떠오르는 순수한 하모니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뿌리를 드러낸다. 가장 자유로운 인간조차도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예링의 정교한 음향 세계 또한 자유롭지만 자의적이지 않다. 고전적인 현대음악, 천상의 소리, 춤출 수 있는 리듬(그러나 인용 없이 오직 자기만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들)이 자주 강렬하게 대비된다. 결코 상냥하진 않지만, 늘 인간적이다.

괴를리츠의 웅장한 극장, 즉 지금은 괴를리츠-치타우 게어하르트 하우스만 극장으로 통합된 무대에서 신 라우지츠 필하모니가 연주하며, 로만 브로글리-자허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이번 공연은 울리히 케른이 지휘, 이 역시 매우 유연한 대처력의 증거이다) 상황에 능숙하게 반응했다. 뒤틀린 리듬과 과감한 동시진행 — 거기에 아카펠라 4중창이 더해질 때는 더욱 — 이 집중력을 요구하지만, 관객에게는 진정한 음악극적 체험을 제공한다. 70분 동안 그람시가 부르고 쓰는 감정, 상황, 언어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 꿈쩍 못하는 사람들

에미네 권어의 무대미술은 이러한 점을 포착한다. 거대한 책의 암시가 배경으로 서 있고, 감방의 벽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그람시’는 괴를리츠에서 상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며, 베른하르트 F. 로게의 연출은 그에 걸맞게 그람시의 기억들을 그림자처럼 재빠르게

소환한다. 1991년 베이징 출생의 바리톤 부안 리는 글씨로 가득한 수감복을 입고 조심스럽고도 감동적으로 타이틀 롤을 연기한다. 젊음과 활기를 지닌 그의 목소리는 마이예링의 음악이 요구하는 섬세함과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한다. 마이예링의 음악은 융하인리히의 텍스트에 항상 긴밀히 밀착되어 있다.



안젤리카는 수녀들과 함께 있다. © 니콜라이 슈미트

하지만 작곡가는 악기 편성에까지 또 다른 계획을 반영했다. 그는 악기를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이와 조합될 수 있는 유명한 이탈리아 오페라 작품을 암시했다.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잘 떠오르지 않는 작품이지만, 마이예링은 이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낸다. 그는 대본을 처음 읽자마자 자코모 푸치니의 '수오르 안젤리카', 즉 『일 트리티코』의 단막 오페라 중 하나를 떠올렸다고 고백한다.

실제로도 안젤리카 역시 절망적인 감금 상태에 있다. 사생아를 낳은 직후 무정한 친척들에 의해 수도원에 유폐된다. 그녀 역시 집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독실함 속에서 홀로 있다. 로게의 연출은 '그람시'에서 준비된 많은 요소를 다시 반영할 수 있다. '수오르 안젤리카'를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20세기 오페라로 들리게 된다. 파트리치아 벤쉬는 이 어려운 역을 인상적으로 소화한다.

마이예링은 푸치니와의 내적(결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결을 염두에 두며, 새로운 음악극이 고전 레퍼토리와 함께할 때 관객과의 접점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드물지만 때로는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오페라에서는 확실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다.

**괴를리츠 극장:** 5월 17일. [www.g-h-t.de](http://www.g-h-t.de)